

원주에서 즐기는 “원주 한살림 생활협동조합”

글 · 송동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홍보실/ehs@kdemo.or.kr



서울, 광주, 부산, 인천, 대전 등 우리나라 어느 도시든 민주화운동의 아픈 흔적이 스며있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원주는 특별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도시다. 저항, 핏빛 투쟁의 느낌 보다는 생명, 살림 등 어머니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도시다. 특히 해마다 5월이면 남다른 기억을 안고 사는 민주화운동 세대에게 원주는 약간은 이질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도시다.

원주를 방문한 날은 청명한 하늘, 살랑대는 봄바람, 약간은 연한 기운이 더한 초록의 느낌이 주는 새 생명의 원초적 힘을 느낄 수 있는 전형적인 5월 중순의 어느 날이었다. 원주라는 도시가 주는 느낌을 더 해 5월을 더욱 5월답게 만드는 생명력의 원천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었다.

소비자운동을 넘어 생산자운동까지

도로변에서 약간은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한 원주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이하 한살림생활) 사무실은 아기자기한 모

습이었다. 사무실, 강의실, 소모임방 등으로 이루어진 한살림 생활 사무실은 각종 소모임 운영, 생명학교, 생산자·교류의 장, 마을모임, 지역단체 교류, 가공품·농산물 위원회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침 지역소모임이 열리고 있는 공부방을 기웃거리니, 진지한 분위기가 온 방을 감돌고 있어 살짝 양해를 구하고 사진 몇 장만 찍고 나왔다.

한살림생활 살림을 맡고 있는 박준영 사무국장은 “원주는 다른 지역의 한살림 생활과 달리 교육에 힘쓰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이 연합물류를 기반으로 해 도농 교류 중심의 소비자운동 중심이고, 부산은 채식 위주로 지역자체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원주는 단순 소비자운동을 넘어 생산자 운동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과 여성중심의 조직 운영에 힘쓰고 있다.” 고 밝혔다.

한살림 운동의 역사는 1985년 6월 24일 원주 지역에서 사회



운동을 하던 박재일(가톨릭농민회 회장 역임, 2010년 별세)과 몇 가구가 먹거리 교류를 위해 원주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1986년 12월 4일 박재일이 무농약 쌀과 잡곡, 참기름, 유정란 등을 가지고 서울 제기동에 '한살림 농산'이라는 쌀가게를 연 것이 그 시작이다.

초기 몇 해 동안에는 한살림 운동에 참여한 가구가 몇 가구도 안 될 때도 있었지만 1988년 한살림 회원들은 "한살림공동체 소비자협동조합"을 만들어 서로 협력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생활문화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이 생산지를 직접 찾아가 농민들과 함께 가까운 이웃의 정을 나누며 서로에 대한 믿음을 키워 한살림생산자협의회도 결성했다.

전국 19곳 지역 조직과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등 부문 조직까지 갖춰

1989년 한살림모임이 결성되고 이를 통해 한살림선언을 발표하면서 생명의 세계관을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한살림선언에 담긴 뜻은 이후 평화운동, 환경운동, 인권운동, 종교운동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같은 해에 청주에서 처음으로 지역 한살림이 설립된 이후, 경남, 강릉, 원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한살림 지역조직으로 들어 오는가 하면 각 지역 한살림이 새로 설립되어 오늘날과 같은 전국 19개 지역 한살림 조직과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등 부문 조직이 갖추어 지게 된다. 본부는 서울 장충동에 있다.

한살림생협에서 밝히고 있는 전국 한살림의 살림살이 규모는 다음과 같다. 회원 수는 25만 명, 매출액은 2,000억 원, 출자금은 201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규모이며, 원주 한살림생협은 5,700여 명의 조합원, 40억여 원의 매출액, 7억 원대의 출자금 규모를 갖고 있으며 2,000여 명의 생산자, 1,300여 개의 직거래 품목을 갖고 있다. 성장 속도를 보면 1990년대에는 꾸준히 늘기는 하나 주목할 만한 성장속도는 아니었으나, 2000년대에



밝은신협 빌딩 지하에 위치한 원주 한살림 생협 매장 모습. 초기 한살림 생협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 원주 밝은신협 건물 내에 있는
무위당기념관, 무의당 장일순과
관련된 전시 자료

▶▶ 최정환 한살림생협 이사장



들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 증대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사회의 주요한 가치로 자리잡으면서 비약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생명의 세계관’ 담은 한살림 선언

한살림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살림 선언과 원주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살림선언은 1989년 환경위기와 생태주의, 동학사상,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생명의 세계관을 사회에 전파하려고 한살림모임이 결성되면서 시작된다. 한살림모임은 무위당 장일순 선생과 시인 김지하, 사회운동가 최혜성, 오늘의 한살림 운동을 이끌어온 박재일 등이 중심이 되어 공부모임을 진행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해 이를 한살림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다.

한살림 선언은 산업문명이 낳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함께 진단하면서 이들을 뛰어넘는 ‘생명의 세계관’에 대해 세상에 이야기 한다. 모든 생명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전한 생명 세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한살림 선언의 기본 가치다.

또한 원주는 무위당 장일순 선생과 지학순 주교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의 걸출한 인물을 배출한 지역이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은 원주에 대성학교를 세운 교육자로, 사람의 얼굴을 난초에 담아낸 서예가로, 신용협동조합운동과 한살림 운동 같은 공동체운동을 펼친 사회운동가로, 70년대 원주를 민주화운동의 본거지로 만든 민주화운동 지도자이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살림의 정신을 주장한 사상가이기도 하다. 지금은 (사)무위당사람들이 원주에서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학순 주교는 천주교 주교로 봉직하는 동안 민주화운동에 앞장서 1970년 원주문화방송 설립에 앞장서고, 김지하 등 의식 있는 청년을 지원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되면서 천주교가 조직적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만든 종교 지도자이면서 민주화운동 지도자이다. 지금은 (사)지학순정의평화기금(들빛회)에서 지학순정의평화상 시상 등의 기념사업을 하고 있다.

지학순 주교는 1972년 남한강 대홍수로 물난리가 났을 때, 독일 교회에 구호기금을 요청했고, 그 기금의 일부를 원주시 내에 건물을 매입하는 등 신용협동조합운동에 사용했다. 이와 같은 걸출한 지도자들의 영향 아래 원주지역은 1960년대부터 다양한 협동, 자립운동을 시도했다.



◀ 원주 한살림 생협 사무실 내부의 한살림 활동을 소개하는 그림자료

최정환 한살림생협 이사장은 원주지역의 특징으로 다른 지역출신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들었다. 최 이사장도 박 사무국장도 태생은 원주지역 사람이 아니지만 원주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 특히 김지하, 이부영 등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원주로 피신을 왔을 때도 보듬어 주었듯이 원주는 어머니와 같은 도시라고 자랑한다.

올해 70세리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원주 지역 17개 단체를 아우르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대표를 맡고 있는 등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고 있는 최 이사장은 이제는 자신과 같은 민주화운동 1세대는 물러나고 젊은 층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결코 일을 놓지 않는다. 잠깐의 면담 시간만 주어졌을 뿐 춘천지역에서 열리는 강원도 지역 협동조합 네트워크 운영 회의를 위해 최 이사장은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대안적 협동경제 모델로

1970년대 지학순 주교가 독일에서 받아온 기금으로 매입한 원주시내의 밝은신협 건물을 둘러보았다. 밝은신협 입구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으로 밝은신협에 수여한 표창장이 게시되어 있고, 각 층에는 의료생협 등 원주지역 생활협동조합과 (사)무위당사람들 등이 입주해 있다.

잠시 의료생협과 무위당기념관에 들러 설명을 듣고, 지하 1층에 있는 한살림생협 매점으로 갔다. 이 매점은 한살림생협 설립 시절의 매점으로 “원주한살림공급소”라는 간판을 그대로 달고 있다. 제철 채소들을 비롯해 유기농 농산물 등이 진열되어 있는 이 조그마한 매점에서 1,300여 개 물품이 거래되고 있다.

매점 관계자는 한살림생협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한다. 각종 제철 음식 정보와 거래 일자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제 때에 제대로 된 물품을 살 수 있다고 한다.

박 사무국장은 취급품목이 아직은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에 한정되고 있는 데 앞으로는 공산품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뜻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대기업의 횡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생협과 같은 대안적 협동경제 모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연대하고 내부자 거래를 통해 가능한 많은 물품을 거래하여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으로 성장하는 것은 스페인 몬드라곤의 예에서 보듯이 꿈이 아니라 곧 이루어질 미래라고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부적절한 내부자 거래를

▶ 원주 한살림 생협사무실
내부 공부방에서
진행 중인 소모임 모습

▶ 한살림생협 박준영
사무국장



통해 거대 공용으로 성장한 것처럼, 협동조합들은 공정한 내부거래를 통해 규모를 키워 대안경제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 박 사무국장의 주장이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사회연대기금을 확충하지는 주장을 한다. 거래액의 1%만 사회연대기금으로 적립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의제 해결이나, 이상 기온 등 자연 재해 대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뢰의 공동체 확산을 기대하며

박 사무국장은 한살림생협 운영 관련 투명성의 예로 작년에 있었던 한살림생협에서 운영하는 물류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들었다. “전국 한살림생협의 물류를 담당하고 회사를 주식회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국세청 직원 수십 명이 한 달에 걸쳐 조사를 하였음에도 운영자의 세무지식 미숙으로 천 만 원 내외의 세법 위반을 지적받았을 뿐이었고, 세무조사반 사람들이 조사 종결 후 바로 한살림생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며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자랑했다.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새삼 강조하는 박 사무국장은 조합에 새로 가입하는 생산자 회원에

대하여 지금은 경영컨설팅을 할 정도로 숙련된 경영능력을 뽐내고 있다.

내년은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 해이고, 정부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생산자 회원은 소비자 회원에게 안전하고 제대로 된 물품을 공급하고, 소비자 회원은 생산물에 대하여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생활이 이뤄짐으로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원주 한살림생협이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 협동조합의 전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를 한다. 또한 단순한 상호이익의 증대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을 넘어 한살림 정신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주요한 가치로 자리 잡을 내일을 기대해 본다. *박준영*